

70년 창립...국민건강증진 앞장 대한간호학회

1970년 4월 탄생한 대한간호학회는 현재 7개 분과학회와 총회원 1천9백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활동의 성과를 집약하고 있는 대한간호학회지는 1970년 12월 창간 이래 지금은 연 4회로 증편 발간, 한해 평균 1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회회원으로서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영희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활약하고 있다.



金 芬 漢

〈대한간호학회/한양대 의대 간호학과 교수〉

이간, 건강, 환경, 간호는 간호학의 주요개념이다. 이 세상의 기원에서부터 인류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왔다. 따라서 간호학은 간호 대상자로서의 인간을 생물학적, 심리사회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질병에 노출된 대상자의 안녕과 건강증진 및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후 어떤

중재로 관리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더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 국가, 범세계적인 환경이 인간과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적용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정신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간호인들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소, 산업체, 병원분야에서 활약하면서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키고자 간호의 이론, 연구, 실무간의 적절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한간호학회가 있다.

학문 교류의 모체, 학회지 출간

대한간호학회는 1970년 4월 18일에 간호협회 산하 단체로 탄생하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이귀향 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으셨고 1974

년에 간호협회에서 독립되면서 하영수교수가 회장에 취임했으며, 매 2년을 임기로 하여 한운복, 김광주, 이평숙, 홍여신, 김조자, 김수지, 정연강회장에 이어 현재는 김분한회장이 재임중이다.

분과학회는 1971년 간호행정학회, 내외과간호학회, 산소아과 간호학회, 보건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의 5개 분과로 출발하여 1979년 내외과간호학회가 성인간호학회로 1994년에 모자간호학회가 여성건강간호학회와 아동간호학회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7개 분과학회의 형태를 갖추면서 총 회원 1천9백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회의 주요 사업내용은 연구활동,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학술 및 홍보활동, 학회지 및 기타출판사업이다. 학회는 1970년 12월 20일에 「대한간호학회지」를 창간한 이래 1972년부터 연 2회 발간하였고, 1985년부터 연 3회로 증편되었으며 현재는 연 4회 1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는 연 6회로 증편될 예정이다.

또한 1986년에는 학회주관으로 간호사 국가고시문제 수정작업을 하였다. 학회사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되어 1987년에는 문교부로부터 우수학회로 선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Nursing Index에 간호학회지가 등록되어 한국간호학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기획법제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술위원회, 출판위원회, 교육위원회로 구

성되어 있다.

기획법제위원회에서는 학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위원회는 재원의 확보와 프로그램 중점사업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학문발전을 위한 계획과 학술대회를 위한 학술위원회, 학회지 발간과 학술자료의 발간을 위한 출판위원회, 간호교육의 주요 정책과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교육위원회가 각기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간호학분야 종합학술대회 개최

초창기의 열악한 환경에서 1974년 5월 '과학기술의 발전과 간호'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권위와 다학제간의 학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회원 개개인에 있어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문을 정련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은 1980년 2월에 '80년대는 간호이론 정립의 해', 1982년 3월 '사회학적 연구방법', 1984년 4월 'An overview of biomedical ethics', 1985년 3월 '청소년을 위한 간호학적 접근', 1987년 3월 '간호이론의 체계모형', 1988년 2월 '건강관리전달체계의 미래 간호사의 역할', 1990년 1월 '대한간호학회의 90년대 과업', 1990년 12월 '간호의 행위론적 접근', 1992년 12월 '간호전문화를 위한 전략', 1994년 12월 '응급간호교육의 방향', 1995년 12월 '교과과정개편

및 비판적 사고', 1996년 12월 '비판적 사고', 1997년 12월 'Interdisciplinary approach: concepts and theory, application to nursing practice'의 주제로 역대 총회를 개최하면서 명실상부한 전문적 학회로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간호의 탁월성을 인정하고 지도자적 자질개발을 격려하며 고도의 전문가 간호수준을 진작시키고 독창적 연구를 자극하며 전문직의 목표와 이상에의 헌신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가지고 1922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시작된 Sigma Theta Tau 국제 간호학회 한국지부가 1987년에 결성되었다. 1989년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과정중에 있는 1백20여명을 회원으로 인준하는 인정식을 가진 바 있으며 초대회장에는 홍영신회장이었고, 현재 오가실회장이 한국 간호계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미래 지향·연구하는 학회

1995년 한국과학기술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한 학회는 다학제간의 교류와 더불어 학회사업을 원활히 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학회지를 만들기 위하여 SCI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WWW에 홈페이지(<http://www.chollian.net/~kanurse>)를 개설하고 있으며 학회의 소식과 회원관리, 학회논문관리 등 모든 업무를 WWW를 통하여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1977년 하영수회장이 ICN의 간호전문위원

으로 선출되었고, 1985년에는 전산 초회원이 제 3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최영희회원이 여성단체협의회회장으로, 김모임회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간호학회는 간호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 본회와 분야별 학회의 조직강화 △ 학술교류증진 △ 간호연구의 질적향상 △ 재정강화 △ 간호교육의 질적향상 △ 출판사업의 확대 △ 간호사 국가고시문제 방향개선으로 하고 올해의 중점과제로는 간호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모형을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시원 설립추진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21세기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각각 간호사업 대상으로 포함되며 포괄적인 건강서비스가 제공되고, 질병치료 위주가 아닌 건강유지, 증진, 질병예방 나아가서 재활이 강조되는 국민건강관리체제로서 다양한 배경의 전문인력이 건강사업의 속성과 내용에 따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대상자는 의료진의 다양하고 전문화하고 포괄적인 역할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간호 전문화에 대한 문제를 대두시켜 전문직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환기시키고 앞으로의 전문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간호학회이다. ㉞